

깨침의 세계 드러내 보이는 웅숭깊은 '격외언어'



내 삶의 마지막 노래를 들어라
글 이상철 사진 이상엽
이러아침 펴냄 | 1만 2천원

당신은 어떤 유언(遺言)을 할 것인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다 투지 말고 잘 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짚신장수처럼 세상살이의 노하우를 전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사회에 재산을 헌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염원하는 송고 한 멘트를 남길 것인가. 어떤 경우가 됐던 유언은 글로 남기는 게 일반적이다. 동영상이나 녹취록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흔한 예는 아니다. 글로 남기는 유언은 다분히 서술적이거나 훈계조거나 간곡한 서간체다.

유언을 시로 남긴다면? 압축과 다중의 의미부여, 총괄살인의 기지로 보여주는 깨달음의 세계... 선시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런 선시의 형태로 유언을 남기는 것, 바로 열반송(涅槃頌)이다. 임종제라고도 한다. 임종을 앞두고 읊는 계송이란 의미다. 주로 선사들의 열반송이 많이 전하는데 한마디 한 구절이 갖는 오도의 세계는 무한하다.

그냥 자유시가 아니라 선시의 형태로 유언을 남기려면 죽을 앞에서 얼마나 초연해야 가능할지 범부들은 가능조차 하기 어렵다. 수행자들은 죽음조차 한 구절의 시로 연출해내는 멋쟁이들이었다. 선사들의 열반송은 '무엇'을 남겨주는 유언이 아니라 깨침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장엄한 법문이다. 그래서 상식 밖의 묘사도 서슴지 않는다. 격외성(格外性)이 활발하고 웅숭도량이 넓고 깊다.

공연히 이 세상에 와서
지옥의 찌꺼기만 맛보고 가네.
내 뼈와 살은 저 속속 버려두어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라.

16세기를 풍미한 화언(熙彦) 스님의 열반송이다. 오고 감의 질서가 본래 없음을 드러내는 지고한 가르침이다. 현대의 고승 성철(性徹) 스님의 열반송도 "일생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로 시작된다. 물론 한 생의 살림살이가 공(空)임을 가르친다.

《내 삶의 마지막 노래를 들어라》는 공부후 이상철씨가 65명의 고승들이 남긴 열반송을 묶은 것이다. 열반송과 고승의 행적·일화 그리고 어려운 용어 풀이까지 곁들여져 있다. 열반송을 무뎠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감한 장치들을 한 것이다. 이 책은 서산 대사나 함학(函學) 등 조선의 결승들에서 근현대 큰스님들의 열반송을 새록새록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맛이 있는데 이상엽 작가의 사진들도 '언어 밖의 언어'로 열반송의 가르침을 북돋워 준다. 고승들의 열반송 그 마지막 노래는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죽은 자의 자비다. 임연태 기자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정갈한 언어로 간절히 가르치는 '禪'



"아!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배로 삼는 대상이 예전 사람들과 어찌 이다지도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예전 사람의 배움에 그 뜻을 두고 대장경 속에 있는 부처님의 글로 보배를 삼았습니다."

440여 년 전, 청허당 서산 대사의 탄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아니, 서산 대사가 오늘날 살아 돌아온다면 그 열려진 오히려 더 깊을지도 모르겠다. 떠도는 글과 말이 그때에 비해 훨씬 많고 통속적이고 피상적이기 때문이다. 1564년에 서산 대사가 <선가귀감>의 서문을 쓸 때나 지금이나 '귀감'이 되는 가르침의 요



선가귀감
서산대사 지음
원순 스님 역해
법공양 펴냄 | 1만5000원

간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조계종 기본선원의 교선사(敎禪師), 어록 등을 강의 하는 스승 원순 스님(사진)이 <선가귀감>을 번역한 간절성 또한 넘쳐나는 언어의 너울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삶을 이끌어 줄 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함이다.

원순 스님의 언어는 깔끔하다. 군더더기가 없고 강요하지

않고 혼돈스럽게 하지 않는다. 서산 대사의 원문이 대장경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금짜리라면 원순 스님의 번역은 그 금짜리기의 '질자탁마'다.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열결성이 돋보이는 문장으로 <선가귀감>을 풀이 한 것이다.

내용이 속속 전달되기 위해서는 문장이 정갈해야 한다. 원순 스님이 번역한 <선가귀감>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정갈한 문장에 스민 간절한 가르침인 것이다. 총 81장으로 묶이 나눠져 있으며 '선 수행의 길잡이'란 부제가 설명하듯, 선 공부하는 이들에게 혼슈의 길을 펼쳐 보인다.

원순 스님은 서울 수송동에 위치한 열반선원에서 10월 10일부터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 오후 1시 <선가귀감>을 강의한다. 02)722-0633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부자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는 것



이제진이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글 이제진, 그림 한인현
동쪽나라 펴냄 | 9000원

30여년간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국회 의원으로 변신한 불자정자인 이제진 씨가 쓴 에세이집이다. 이 책에는 합창의 화음이 깨질까봐 참다못해 공연 중에 오줌을 싸버린 소년, 텔레비전을 켜 놓고 그 불빛으로 저녁을 먹는다는 어느 시골 노인 등 소박한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할머니 밥상이 바로 '웰빙'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권오본 지음
마음의 숲 펴냄 | 9,800원

들꽃과 관련된 글을 써 '들꽃 아줌마'로 알려진 저자가 옛날 밥상 이야기로 책을 엮었다. 어린시절 어머니가 해준 음식, 시골에서 먹던 음식, 외롭고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음식,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 재래시장에서 파는 음식 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이 책은 식물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산행 가서 곱취나 곤달

저자는 특히 대학을 포기한 초보 택시 기사가 지도를 펼쳐가며 길을 찾는 모습에서 진실한 자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모르는 것은 부끄럽지만, 노력하는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부끄러움을 타고도 모자라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흔히 "잘 산다"라고 대답하는데, 이 말에는 부자로 산다는 뜻과 사람답게 또는 아름답게 산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풀어 놓은 뒤 궁극적으로 후자가 목표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저자는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시골서 돼지 키우는 친구를 예로 들며 "이 친구는 이 세상 여러 직업 가운데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더럽고 힘든 일을 하지만 언제나 웃으며 희망에 살고 특히 아주 행복한 얼굴로 산다"고 소개한다.

이제진이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삶을 꾸려가고 그것을 또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다.

김주일 기자

비 같은 나뭇잎을 뜯어고, 서울 자택 뒤뜰에 겨자무·신선초·속삭·왕고들빼기 같은 채소를 길러서, 요리해 먹으며 나이 들어간 내력을 적은 것이다. 저자의 생각이 재미있고, 설득력이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잠든대도 먹으면 절대 살이 찌거나 아프지 않는다"는 게 그녀의 소신이다.

이 책에는 자신이 가꾼 채소들에 대한 단상도 들어 있다. 가령 아픈 언니를 위해 골목 자투리 땅에 꽃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은 뒤 권키는 이렇게 썼다. "가만히 채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생명들이 색채의 미술사처럼 느껴진다. 언니를 위하여 만든 작은 밭이 커다란 숲이 주는 것 못지않은 감동을 준다."

자신이 가꾼 아재술(아)을 좋아하는 저자는 외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분위기가 편하지 않아서 그렇다. 음식을 먹을 때는 몸과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집에서만큼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은 어느 유명한 주방장보다 자신이 가장 잘 만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법구경에도 '일화'가 있네



법구경 인연담
정태혁 역고 옮김
정신세계사 펴냄 | 1만2800원

'고귀한 사랑과 만나면 그 고귀한 성기는 항상 즐겁다. 어리석은 자를 멀리 여의면 항상 안락함을 얻

나니.' (법구경 중에서)

<법구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잘 알려진 부처님의 금언집이다. <법구경>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판본이 여럿 전해지는데, 그간 국내에서 일한 책들은 대부분이 계승을 모으고 주해를 단 것들이어서 부처님 말씀을 온전히 음미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팔리어 판본을 기준으로 삼고 <출요경>(법구비유경) 등을 참고해 <법구경>의 계승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일화들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어 삶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담없이 꺼내 읽기 좋게 구성되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무문관서 꽃이 피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3	답답하면 물아라	법륜	정토
4	하루 10분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다이어
5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선오	전재경 역주	운주사
7	화, 육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툼툼 초드론	미디어 월
8	절음 기차에 갈하는 법	창건	벗더의 마을
9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괴경	불광출판부
10	도를 찾아 떠난 괴왕이	영리 브래들	솔바람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원주생식은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wonjulife.co.kr
원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바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법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심어야 가지고 있는 열매를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 원주말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맛과 영양에서 탁월한 원주장류

- 원주흑장류 25,000원
- 원주백장류 20,000원
- 원주홍장류 20,000원
- 원주노랑장류 25,000원

전국대리점 모 집 중 (무상사) 053) 958-5921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 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웅전 원공 기념 피격할!!!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 (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 (30% 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가귀감 10월 서울 서울법회하는 10월 7일(토) 열립니다.
10월부터 법회장소가 사당에서 도봉으로 변경됩니다.
* 서울선원 ☎ 02-3494-0122(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1시
* 광주선원 ☎ 062-944-4088
* 선문염송 10월 21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 051-545-2460(매월 넷째 일요일)
* 반야심경 10월 28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관자재요양병원 교육관 [마하보디센터]
개원법회 및 산사음악회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정토사관자재회(정토마을)에서는 의료복지 발전의 초석이 될 관자재요양병원 건립에 앞서 교계 최초 의료복지 전문인력양성 및 인성개발을 담당할 교육관 '마하보디센터' 건립을 추진 2007년 9월 완공하여 10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과 교계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전국의 후원가족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개원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마하보디센터 건립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스님 및 단체를 비롯 전국 후원가족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사랑으로 일군 값진 결실도 둘러보시고 행복의 기쁨도 함께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能行 行량

- 일시 : 2007년 10월 7일(음 8월 27일) 오전 10시
- 장소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릉리 관자재교육관 마하보디센터

I부. 개원법회(오전 10시)

- 법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 축사 및 격려사 (각계 내빈)
- 감사패 수여 등

II부. 산사음악회(오후 12시 30분)

- 정토가족 노래지망
- 초대가수 축하공연 (한해진, 안치환, 이유진 외 다수)

주최 :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 주관 : 마하보디센터 (울산지연) ■ 후원 : 관자재총신도회, 아미타호스피스 총동문회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충북 청원군 마린면 대신리 산 17-1 043)298-2258

관자재요양병원, 마하보디센터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릉리 138-1 052)264-1007